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이지현	영문	JiHyeon LEE
학과(전공)	토목공학과		학번	201**507
파견 학기	2017년도 1학기		연락처	
파견 국가	프랑스	파견 대학	트루아 공과대학	

❖ 경험보고서는 다음 파견 학생을 위해 A4 3페이지 이상 상세히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주위에 교환학생 경험이 있는 지인들을 통해 현지에서의 경험 등을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모두 제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추천했습니다. 저 또한 어학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었고, 학생 신분으로 해외에 장기로 체류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환학생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되었고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은 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프랑스는 출국 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자마자 해당 학교에서 학기 날짜를 확인 해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고, 그 다음으로 바로 비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파견 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입학 허가서를 받기 위해 학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여권 등 여러 문서를 보내야 합니다. 보내고 1.2 주 뒤에도 서류가 오지 않아서 메일로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 후 비자를 준비하는데 적어도 출국 한달 전 에는 신청해야합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복잡하게 신청을 하고 그 후에 등기로 여러 서류를 보내면 서류를 받았다고 비자 신청 홈페이지에 표시됩니다. 그 후 면접 날짜를 선택하고 면접을 보고, 그 후에 대사관에 가서 면접을 한번 더 봅니다. 몇주 뒤 비자가 부착된 여권이 집으로 발송됩니다. 출생증명서를 공증받아야 하는데 아포스티유를 대사관?에서 받은 후 대사관이 지정한 번역가에게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수강신청은 파견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대로 일단 하고 현지에 와서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학교 근처와 학교에서 버스로 10분거리에 있는데 선택지에 체크하는 사항에 따라 변경됩니다. 비자발급은 최대한 빨리 하는것이 좋습니다. 서류와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학기중에 서울에 계속 방문을 해야 하는데 기말고사와 최종 발표와 겹쳐서 교수님께 양해를 여러번 구했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트루아 공과 대학의 크기는 금오공대와 비슷하고 대다수 수업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집니다. 파리에서 기차로 한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 트루아 시내와 버스로 20분 거리입니다. 기후는 여름이 한국보다 늦게 오고 겨울은 한국과 비슷하게 춥습니다. 주변에 마트를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야 하고, 도보로 이동하기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교환학생들은 대부분 영어로 가르치는 수업을 듣는데 불어로 된 수업을 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일 매니지먼트 수업과 불어 인텐시브 코스를 듣게 됩니다. 매니지먼트 수업은 조별과제이고 불어 수업은 불어를 잘 하는 학생들이 낮은 반을 수강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그 후에 정규 학기가 시작되면 수강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는 환경경제, 미술, 공학수학 등을 들었는데 수업 중간에 불어로 말하는 교수가 많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비는 한달에 40만원 정도 하는데 알로까시옹을 신청 하면 한달에 절반 정도를 프랑스에서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지원하는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저는 프랑스에 가고 네달 뒤에 받았습니다. 빠르게 지원해야 합니다. 생활비는 한달에 기숙사비 포함 100만원 정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물가는 싼 편이지만 외식값은 비싸고 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았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교환학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어지는데 처음 한달 동안은 교환학생들이 매니지먼트와 불어 수업을 선택적으로 듣게 되고 그 후에 학교 학생회에서 여러 여행 프로그램을 알려줍니다. 신청하고 돈을 지불하면 갈 수 있지만 일정이 조금 많아서 체력적으로는 힘들지만 친구를 사귀기에는 좋습니다. 또 여러 파티를 하는데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에 운동 시설과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어있고 한 학기에 3만원 정도 지불하면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암벽등반을 친구들과 했었고 색다르고 재미있었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인사할 때 볼을 얼굴에 대면서 인사하고, 집에 초대되거나 하면 조금 일찍 가는 우리와 달리 약속시간 보다 조금 늦게 가는게 예의입니다. 식당에 가면 먼저 자리에 앉지 말고 자리 안내를 기다려야 합니다. 팁은 선택입니다. 식당이나 마트에서 대부분 직원들과 인사를 합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같이 생활해 보니 문화적 차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표현도 크고 우리는 조금 소극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생활하면서 장점들을 잘 수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